

정보란 무엇일까?

정보의 정의를 위한 시도는 그동안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정보의 포괄적 개념 정의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 이유는 일반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와 학술적으로 사용하는 의미가 부분적으로 다르고, 또 학문분야별로도 그 의미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일반사회와 저널리즘 분야에서는 정보를 ‘실정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 또는 사실내용’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산학 분야에서는 ‘일정한 약속에 기초하여 인간이 문자·숫자·음성·화상·영상 등의 신호에 부여한 의미나 내용(예: bit)’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보학에서는 ‘인간의 판단이나 행동에 필요한 지식(Knowledge for action)’으로 이해한다.

사실 정보라는 용어는 영어의 ‘information’을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60년대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서양에서도 40년대 이전의 문헌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용어였다. 지식사회학자 자이퍼트(H. Seiffert)는 ‘정보(information)’라는 용어의 어원이 “informatio”라는 라틴어 또는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였다. 자이퍼트에 따르면 라틴어의 “informatio”는 원래 형태 또는 내용을 지니는 무엇인가의 제공(providing)이라는 의미였으나 교육의 뜻으로도 사용되었으며, 이때 informatio에 포함된 교육의 의미는 가르침, 지도 교화 등을 통한 「주관적」 교육 보다는 진술, 설명, 해명 등에 의한 「객관적」 교육의 측면을 주로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보(information)라는 용어가 오랜 동안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고 또 40년대 이전의 문헌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information”의 교육적 의미와 “education”의 의미가 부분적으로 동일했기 때문이며, 또 주관적인 교육 측면에 집중하던 당시의 교육 상황에서는 “education”이라는 용어로 충분했기 때문에 정보라는 용어에 담겨있던 객관적 측면의 교육이라는 의미는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에 독일에 유학 중이던 森鷗外(모리오가이)가 독일어의 inform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기 위해 1890년경 “情報”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情”은 사정이나 실정의 뜻을, “報”는 보도 또는 보고라는 뜻으로 파악하여,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달하는 방법이라는 뜻으로 情報라는 말을 새로이 만들어 냈다. 이후 1927년 岡創由三(오카쿠라유조)의 新英和辭典에서 information이 처음으로 情報로 번역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38년에 文世榮이 발행한 朝鮮語辭典에서 정보를 “사정의 통지”라는 의미로 수록한 것이 최초로 나타난다.

6·70년대만 해도 정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두려운 의미로 받아들여졌는데, 그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중앙정보부(Central Intelligence Agency)”라는 기관의 비정상적 행태의 업무에서 연상되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의 정보는 일본에서 1902년(메이지 35년) 간행된 Dictionary of Military Terms

and Expression이라는 英和辭典 또는 1936년 간행된 模範英和辭典에서 intelligence를 情報로 번역한 것을 가져다 쓴 것으로 유추된다. 지금의 “국가정보원(National Intelligence Agency)”의 정보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 information을 정보로 이해하여 전문분야에 확산시키는데는 60년대 이후 수입된 학문인 정보학과 전산학의 역할이 컸으며, 일반사회에서의 통용과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인터넷이다. 오늘날에는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들이 다 “정보”라는 이름으로 수용되어도 별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이처럼 다양하기도 하고 혼돈스럽기도 하지만 어쨌든 작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포스트모던)세상이자 정보사회이다.